## Shale Gas 개발에 직면한 SK의 대응 전략

<u>김태진\*</u> SK 이노베이션 (tjkim95@sk.com\*)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는 미래 주에너지원으로 석유와 석탄 자원에 의존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국의 석유 화학 산업은 석탄에서 파생되는 가스 등의 활용 기술에 집중하였으며 한편으로 중동의 에탄 크래커를 기반으로 한 저가 석유 화학 제품이 장기적으로 아시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Shale Gas 개발은 이 같은 예측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Shale Gas 개발이 활발한 미국 텍사스는 20세기 초반의 석유 개발 붐에 이어 100여년 만에 제2의 석유 붐을 맞이하였으며, 값싼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북미 지역의 철강 등제조업과 에너지, 석유 화학산업이 부활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북미에서 촉발된 21세기 에너지 혁명은 2050년까지 석유와 가스 자원이 주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세계의 에너지수급 전망도 바꾸어 놓는 등 전세계로 파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석유 화학산업은 Shale Gas가 가져올 급격하고 전방위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Shale Gas 혁명이 Naphtha Cracker를 기반으로 한 석유 화학산업에 가져올 변화를 논의하고 Naphtha Cracker의 경쟁력이 낮아질 경우 C4 Olefin과 BTX등 기초 유분의 조달 방안, Shale Gas의 활용 방안 등 전반적인 대응 전략을 소개한다.